

* 2008년 5월 21일 수요말씀 참고 자료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금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확대시켜 설명해주시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그대로 씹박하게 토를 달지 않고 전해주었기에 금 같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핵심과 엑기스를 뽑아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고로 부연 설명과 참고 설명을 하다가 본 말씀을 한 단락씩 두 단락씩, 혹은 한 문장 전체를 빼먹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연 설명을 하다가 핵심을 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마디도 빠지지 않도록 짚어가면서 잘 설교해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문서로 나가는 말씀의 글씨 크기와 밑줄,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더 참고하셔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편한 대로 글씨 크기를 줄여서 단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글씨가 너무 작으면, 외우지 않는 이상은 보기도 힘들고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씨 크기, 밑줄, 진하게 표시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 그러한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이 생각하여 표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한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 말씀을 외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심정이 모든 섭리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기도드립니다.